

延南地球村安排青少年犯罪講座 2022.09.23





전체보기 **검사 "장난"이라는 '또래 성폭력' 법원서 징역형 선고**

기사입력 2017-08-21 11:25 김진원 기자

습 무렵의 불기소처분 사건
피해자측 노력으로 재수사
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

여고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져도 장난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
했던 사건이 피해자 측 변호인의 노력 끝에 재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징
역형이 선고됐다.

피해자 측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는 "성추행은 범죄이지 장
난이 될 수 없다는 지금의 단연한 상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"며 "연백하
성추행을 장난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던 담당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잘못됐
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다"고 했다.

이어 "어쩌면 피해여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보다
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수사기관이
었다"며 "(이제 판결이) 피해자들에게 위로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두 번
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했다.





